



攝  
信  
慈  
愛  
世

본회는 동문상호기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92. 10. 15 등록번호 (44)-00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92年(檀紀4325年)5月28日 第157號(1)

발행인	鄭張金	在秀榮
편집인		哲正魯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733-3991~3		
FAX: 733-3992		
우편번호 01232-31-0525677		
은행지로번호 7500891		

바가 크다 하겠다.  
금년도 1차 會長團會議

本會 92년도 1차 회장단회  
의가 지난 4월21일 吳泰호텔  
36층 아스트룸에서 鄭在哲회  
장을 비롯한 文泰植수석부회  
장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9次 運營委員會 열려

本會 제9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오후6시30분 신라  
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文泰植  
운영위원회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世茂운영위원 주최로 열  
린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本  
會운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 道峰區 同門會 창립

도봉지역동문회가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도봉구 주유동  
삼정가든(4·19묘역 앞)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창립되었다.  
동문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천영동문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모임에서는 첫임원진  
구성이 있었는데 회장에 심준  
섭(61정치, (주)봉제계 시장)  
동문이 추대되었고 부회장에  
조국형(62정치, 정남산업(주)  
전무), 쿠오강(66농경, 금강공  
업대표)동문이 각각 추대되었  
다.

또한, 총무에 이성수(69임  
학, 건설업)동문, 운영위원회  
에는 김원식(61정치, 영성여  
중교감), 송석구(62철학, 모교  
교수) 김회오(64정치, 모교교  
수), 박상문(65국문, 광운대학교  
수), 여운용(65법학, 삼성화학  
대표) 서옥세(68경, 대한화제  
보험부장) 안중옥(69사학, 모  
교총무과장)동문이 각각 맡게  
되었다.



▲ 사진은 本 同窓會가 입주한 白象빌딩전경.

들어갔다.

이날 입주식에는 本會 최치  
근상임부회장을 비롯한 80여  
임원과 모교 민병천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東國發展의 주체가 될것  
을 다짐했다.

모교 >필동 대기빌딩→관훈

동 성화빌딩으로 이어지는 임  
대사무실 時代를 청산한 白象  
빌딩 3층매입, 첫 資產이라는  
업적은 80년대후반 학자부에  
따라 재학생회비가 동결된 이  
후 순수 동문회비의 축적으로  
이룩한 것이라 더욱 값진것이  
다.

89年 운영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계속된 本會 事務局의  
긴축재정을 통해 白象빌딩의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기실 서울대, 고대 등 몇몇  
동창회를 제외하고는 자체선  
물이나 자체시무실을 운영하  
고 있는 대학동창회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만 봐도 白  
象빌딩 3층매입이 시사하는

## 白象ビル 時代의 개막

### 10萬東國人의 숙원이뤄

본회의 사상 첫 資產이자  
10萬東國人의 새 구심점이 될  
白象빌딩의 時代가 개막되었  
다.

지난 2일 사무실 입주를 마  
친 本會는 7일 白象빌딩 입주  
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白象빌딩 時代의 開幕을 祝賀하며

同窓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國民銀行同門會

會長 鄭在雄

太平洋그룹 同門會

會長 金炯國

東國LIONS클럽

會長 朴峻亨





# 民自黨사무총장 金榮龜동문

## 일처리 빈틈없는 4選의원



▲ 金榮龜  
(62 경제·본  
회 부회장)  
동문이 지난  
23일 民自黨  
事務總長에  
임명됐다.

4選의원인 金동문은 남성적  
인 스타일에 의리를 중시하며  
저돌적이나 솔직한 성격답게

「당헌현실…」出刊기념

### 俞賢穆 동문

▲ 俞賢穆  
(49 전문) 동  
문은 지난 4  
월 25일 오  
후 5시 대한  
출판문화회  
관 4층에서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책  
『단련 현실, 열린 영화』의 출  
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  
회를 개최했다.

유동문은 오랫동안 한국 영  
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바 있다.  
제작년에는 「영화학 논집」  
을 발간한 바 있다.

### 목사 임직식 가져



### 金鎮福 농문

▲ 金鎮福  
(52 정치·前  
교수) 동  
문이 지난 4  
월 10일 여의  
도 노회 회판 2  
층(루이 회판 2  
층)에서 「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金동문은 서울신문논설위  
원, 한국방송공사해설위원, 남  
북적십자회담자문위원, 제9대  
국회의원등을 역임했다.

### 日本文學 강연회

#### 愼根緯동문

▲ 慤根緯(교교수·일본학  
연구소장) 동문은 일본각大小  
田實씨를 초청, 12일 하오2시  
모교 동국관에서 「한국문학과  
제작년에는 「영화학 논집」  
을 출판한 바 있다.

일처리가 분명한 것으로 정평  
이 나 있다.

민정당 청년분과위원장과  
원내부총무, 총재비서실장, 한  
·터키 의원친선협회장, 국회  
재무위원장등을 역임했으며  
本會 부회장으로 지역구인 東  
大閭面에서는 동대문·중랑동  
문화의 고문을 맡아 열성적으  
로 활약중이다.

일본문학의 새로운 위상정립」  
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열  
었다.

### 여류문학인회 會長

#### 宋媛熙동문

▲ 宋媛熙  
(55 국문·소  
설가·동국문  
학인회회장) 동  
문은 최근  
열린 한국여  
류문학인회  
정기총회에서 「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回甲기념 논총 받아  
金昌洙 동문

▲ 金昌洙  
(57 사학·도  
교교수) 동문  
은 회장을  
맞아 5월 15  
일 하오6시  
소피렐 앤비  
서더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후학  
들로부터 헌감기념논총 2권(여  
사학의 제문제, 한국민족독립  
운동사의 제문제)을 봉정받았  
다.

### 勞動金融(株) 이사

#### 鄭豪鎮 동문

▲ 鄭豪鎮  
(60 경제·본  
회이사) 동문  
은 5월 21일  
서울여의도  
노총회관에  
서 열린 노  
동금융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金동문은 서울신문논설위  
원, 한국방송공사해설위원, 남  
북적십자회담자문위원, 제9대  
국회의원등을 역임했다.

## 기프트 광고

### 월간 상품 종합정보지

저희 기프트 광고는 각종의 기획 편집하여 제작  
되는 월간상품종합정보지입니다. 상품정보  
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철저하고 체계  
적인 전산시스템으로 광고주 여러분들을 찾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 기프트 광고는 기업 P.R 홍보를 카드로  
그, 마크, 보고, 디자인 등등 모든 광고물을 기  
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4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 「연금봉고…」出刊

## 金翰周獨處

▲金翰周

(71 대원·본

회이사·시립

학교교원연

금관리공단

이사장)동문

은 지난 4월

중순 선진8개국을 중심으로 「연금봉고의 위기」란 책을 비매품으로 출간,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 한의사회 會長피선

## 柳勝元동문

▲柳勝元(81 행원·침실유승 원한의원장)동문은 지난 1월 1일 제19대 서울시 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 교포 학생 교육비支援 趙重勳동문

▲趙重勳(81 경원·한진그룹 회장)동문은 4월 19일 미주지역 취임 20주년 기념식으로 올해 하계학교 참가예정인在外교포중고교생 1백50명을 선발, 왕복항공료와 교육참가비 용돈 20만달러를 지원했다.

## 다물연구소 위원회

## 盧熙相동문

▲盧熙相(84 윤리)동문은 국방부 정책 연구관(서기관)으로 있다가 다물민족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동문은 국민윤리학회 제1회 졸업생으로, 2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민족사상연구과 국민운동에 헌신하고자 상기한 연구소로 자리리를 옮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 藝術의 殿堂 사장

## 許萬逸동문

▲許萬逸(88 대원)동물이 최근 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됐다. 문화부 신설 이후 첫 차관으로 실질적 업무를 주도했던 許동문은 행정

고시로 官界에 입문한 이후 문공부 총무과장과 광보국장, 문화재 관리국장, 총무실장, 기획관리실장등 광보부와 문광부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 근정포장 受賞

## 李敦淵동문

▲李敦淵(90 행원)동문은 지난 3월 6일 경부주요정책추진 유공자로 선정되어 균정포장을 수상했으며 부서 이동에 따라 문화부·영상상법과장에서 생활문화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李동문은 여전 선후배 동문들에게 「생활문화에 대한 많은 고견을 듣고 싶다」고 당부했다.

## 영화감독 데뷔

## 柳河동문

▲유하(大院在)동문은 자신의 연작시 「바람부는 날이면 암구정동에 가야한다」를 직접, 감독, 영화에 테퀴한다.



## 榮進轉補

## 〈경찰청〉

▲齊聖彬(64 법학)＝서울시 경제3부장에서 본청정보심의관으로

▲丘在台(67 경영·本會이사)＝부여경찰서장에서 경찰청 감찰담당으로

▲李春成(77 행원)＝충남경찰청에서 충남부여서장으로

## 〈문화방송〉

▲柳惠子(64 국문·본회이사)＝라디오체육국 제3부 정보센타담당 부부장우에서 라디오체육국 제작위원(부장급)으로

▲柳興烈(65 연영)＝TV제작국 부국장에서 남북협력담당 국장으로

▲金益鷗(90 경영·본회이사)＝보도제작국 특집카메라부 해외취집담당부장으로

▲申洛均(90 경원)＝미술국 미술3부장직대

## 〈유한양행〉

▲趙鑑德(71 경영)＝도매지점차장으로

▲趙鑑德(71 경영)＝도매지점차장으로

##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常務理事 會費(단위: 만원)

△유병완(68 상학)＝20

△서석구(62 법학)＝20

△안철환(52 경제)＝20

△방조원(78 행원)＝20

△조재현(49 사학)＝20

△구영학(68 행원)＝20

△공진식(61 경제)＝20

△신우철(66 경의)＝20

△정해수(49 사학)＝20

△김영환(62 경제)＝20

△양정모(81 행원)＝20

△김성환(64 경제)＝20

△황승민(63 상학)＝20

△김민식(63 경영)＝20

△총=280만원

◇理事 會費(단위: 만원)

△박종윤(59 경제)＝7

△김시홍(62 법학)＝7

△박상문(66 국문)＝7

△김호성(64 법학)＝7

△김윤종(73 정의)＝7

△김귀식(72 화학)＝7

△박영환(49 문학)＝7

△이인정(72 상학)＝7

△김대원(65 경제)＝7

△김경록(57 법학)＝7

△김익호(90 정원)＝7

△윤홍섭(72 상학)＝7

△조창원(57 경제)＝7

△김성수(68 경영)＝7

△박승희(65 경제)＝7

△김지현(60 정의)＝7

△김지현(60 정의)＝7

△구교찬(64 법학)＝7

△임영진(57 경제)＝7

△이영자(63 불교)＝7

△한상혁(88 경학)＝7

△김호익(90 정원)＝7

△왕갑손(52 정치)＝7

△이순웅(58 법학)＝7

△한운섭(85 경원)＝7

△오진모(61 법학)＝7

△손 복(91 행원)＝7

△윤상길(63 법학)＝7

△송영인(67 통계)＝7

△민병희(67 상학)＝7

△김경록(57 법학)＝7

△이한우(85 행원)＝7

△백문기(63 법학)＝7

△박영길(64 법학)＝7

△비종하(90 경원)＝7

△김홍석(73 경영)＝7

△김철운(65 사학)＝7

△조창원(57 경제)＝7

△김성수(68 경영)＝7

△박승희(65 경제)＝7

△김지현(60 정의)＝7

△김지현(60 정의)＝7

△김경록(57 법학)＝7



鄭用吉 교수

◇44년 경기도 광주출생  
◇67년 보교 행정학과 졸  
◇77년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정치학 박사  
◇77년 10월~현재 보교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저서:『분단국 통일론』 「통일환경론」의 다수

나는 본교에서 대학생생활을 마친 후 대학원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약7년간 독일에서 유학생활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학창생활은 다른 사람들은 비해 좀 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유학생활 때 그곳 젊은 대학생들과 어울려 기숙사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교묘에서 젊은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는 아직도 학창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20년 또는 30년 만에 학창시절을 떠나려 보는 다른 동문들의 감회와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나의 학창생활」은 중국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동국에서 꽃을 피웠다. 혹 본교에 대한 불만같은 것이 생겨날 때가 있어도 나는 곧잘 김국환의 노래 「타타타」에서처럼 그래도 내가 동국대학교를 나왔으니 대학교수 차나 진쳤잖소 하며 웃어본다.

특히 이 세상은 저 못나고 저 노력 안에서 못사는 것이다. 저 똑똑하고 저 노력하면 왜 못나느냐는 얘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주의사회이다. 물론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평범하게 먹고 사는데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본교를 좋아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도 많고, 또 장관이 된 분들도 많으며, 기업을 해서 성공한 분도 많고, 또 홀륭한 사회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분들도 많다.

여하튼 오늘의 나를 둘이켜 볼 때 나는 「동국」이 없었으면 현재의 나로 존재하지 못

# 나의 학창시절

社會科學大學長 鄭用吉동문

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디류 발진하지 못하는 것도 순전히 내 책임이다. 지금도 가끔씩 뉘우쳐 지는 것은 왜 학창시절에 교수님들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들었는지,

그리고 왜 학창시절 그 황금같은 좋은 시간들을 값없이 보냈는지 하는 일들이었다.

내가 본교에 입학한 것은 1963년도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30년전의 일이었다.

그때 나의 학창생활은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 대학생들의 생활과 몇가지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메모를 지정도록 많이 했다는 것이다.

4·19를 기념한다고 시작한 데모는 결국 5·16까지 기념(?)하는 끝이 되어 대개 5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면 초기放學을 하였다.

게 되었고, 또 아무개 친구는 서울에 애인을 두고 월남에서 전시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학생들의 월남전 파병반대 데모는 점차 그 열기가 더해졌다.

나는 「6·3사태」를 즈음한 데모때 대한민국장앞에서 「죽을 편」했다. 그때를 회상하면 가끔 젊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생각을 하곤 한다.

이렇게 매년 데모거리가 생겼고, 데모를 하면 정부는 오래이 조기방학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벌써 언제 방학을 하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때는 학생대의 수준에 따라 방학의 시기가 결정되는 때였기 때문에 일찍 방학을 했으면 싶은 학생들은 데모를 신하게 한 어리석은 것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학창생활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사진은 韓·日굴욕 외교반대를 외치며 교문을 나서는 당시 모습

리들만 하고 있다.

요즈음은 더 구체적으로 봄은사부근의 땅값이 지금은 평당 얼마인데 그것을 팔지 않고 지금껏 갖고 있었으면 없이 얼마일 것이라는 등, 또는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후회막금인 얘기들만 하여 가득이나 담담한 마음에 불을 질러놓곤 한다.

그러나 나의 학창생활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집」이라고 불리우던 밤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제야 말이지만 그때 장학사는 본교에서 열어졌던 많은 데모의 모의 장소로 이용되었었고, 그래서 某某사는 거의 매일 장학사로 출근하다. 심이 한적도 있었다.

다른 동문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막상 학창생활을 회상해 보니 그때와 지금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거의 3번 지났는데 내가 겪었던 일들을 그리고 내가 지나온 길들을 내 후배 그리고 내 제자들을 그대로 밟고 따라온다는 것 같다.

내가 좀 현명했더라면 선배들의 학창생활을 눈여겨 보면 서 그 분들의 생활중 시간낭비 적이었거나 불편요했던 일들은 괴이거나 조정을 했더라면 도 나는 더 짙높은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쯤 이런 후회도 안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서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미 인생의 황혼에 서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는 학창시절의 내 모습을 지금의 나에게서 발견하고 한다.

## 60年初 대학가 시위로 早期放學 하기도

명동주점서 人生 論하며 젊음의 낭만도 만끽

내가 본교에 입학한 1963년은 5·16의 주도세력들이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해였다.

1964년에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이 본격화되자 학생들은 「對日굴욕외교 반대！」 시위를 벌렸고, 이 시위가 점차 확산되자 정부는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6·3사태」였다.

그리고 1965년에는 「월남 전 파병반대 데모」 또한 심했다. 연령적으로 보면 대학생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군에 입대하여 있었는데, 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어 대학생들에게 주는 심적 충격은 어느 누구보다 커졌다.

내 친구도 월남전에 참전하-

그 때는 또 데모때문에 반조기방학을 한것이 아니었다. 어느 해이기는 쌈파동으로 하숙생들 밥을 해줄 수 없고, 자취생들이 밥을 살 수 없어서 조기방학을 한적도 있었다.

지금 학생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만한 일들이다.

또 나의 학창시절은 경험한 것 가운데 요즈음 학생들과 비슷한 것으로는 그때 우리도 학교발전과 관련하여 불평이 많았다는 것이다.

왜 학교의 역사는 긴데 다른학교보다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왜 학교개선은 많다면 활동을 못하느냐? 왜 전국의 유명사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또는 전국의 불교 신도수가 명예인의 그들이 1만원씩만 내도 얼마인지는 등 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

나는 지금 본교 체육관자리에 있었던 장학사에서 P兄, K兄, S兄 그리고 I兄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남기며 대학생활을 하였다.

그 작고 낡은 다다미 방에

서 우리는 젊음을 노래했고, 인생을 논했으며, 또 정열을 불태웠다. 주머니에 돈 몇푼 있으면 명동의 주점으로 걸어나갔고, 어떤 날은 다방 「코지 코너」나 「심지」에 앉아 있었다. 달 밝은 날이면 당시에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후문 수위실 담위에 걸터 앉아 고창노래도 불렀다.

우리들은 1년여 학교로부터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기도 했고, 또 제일병원쪽의 후문으로 나가 위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필동과 출소쪽으로 가다 보면 원쪽에 「할머니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北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종구 을지로 4가 315-1 푸광BD 510호

회費 ·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조화환·화분, 동·서 양난 <도매가  
격 판매 전문업체> 한통화의 전화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

히 배달해 드립니다. • 전국 •

서울시 서초구 청와동 1445

진로유통 · 꽃도매상가

TEL, (대) 521-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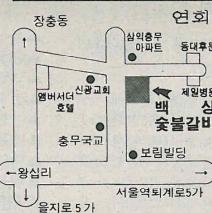
(야) 521-3838

서일화원

김인택

“東國人 여러분을 정성으로 모십니다”

### 전통 숯불갈비 전문



1 2 인송 베스타  
황시대기  
전용주차장 완비

### 전통 백상 숯불 갈비

예약전화 273-39959~60

東岳의 휴식처

### 東大 百象의 집

전화 265-6361

대표 김철규 (86경원)

# 母校 "CF장학회" 탄생

## -연영과 出身연예계 동문 CF합동출연

「CF동문회」라는 이색동문회가 생겨 연예계뿐 아니라 동문회사이에도 화제를 모이고 있다.

바로 모교 연영과동문회(회장=하강일·1기, KBS예능국장)인데 이번 CF동문회는 텔레비전광고에 무너기로 연영과출신 선·후배들이 등장, 브리운관을 동문모임장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CF동문회를 통해 출연하게 될 연영과 선배들은 출연료 전액을 동문회의 기금과 모교 재학생후배들의 장학금 형식으로 기증하고 해태제과 썬키스드컵 광고에 대거 투입된다.

아직 몇명이 출연하게 될지 모르지만 현역연예인으로 활동중인 동문 1백여명 가운데 적어도 30명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이미 출연을 약속한 동문들 중에는 멜린트 이덕화(11기), 강석우(18기), 홍학표(22기), 혁민식(23기), 신혜수(25기), 최유라(28기), 채시라(29기), 김혜수(30기), 고현정(31기), 이미연(31기), 김민희(32기), 개그맨 이경규(20기) 등동문을 포함한 20명선이라고.

동문들의 우정을 힘껏 살피기 위해 제작기간동안 스케줄

이 비쁘지 않은 동문들은 가능한 이 광고의 출연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이광고의 출연으로 엄마에게 되는 수익금은 대략 2억원선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익금을 연영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일부는 모교 연영과에 기증하는 형식을 취할것으로 보인다.

만 이번 연영과 「CF동문회」와 같은 형식으로 출연료를 통한 동문회기금과 모교과에 기증하는 일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런 동문들의 뜻을 전해들은 김홍우(1기, 모교 영영과교수)동문은 「선후배간 정이 가장 돋보한 것이 연영



▲사진은 모교 연영과 출연공연 장면

## 20여명이 출연료전액 科장학금으로 快擲

### 개성 강한 연예인 同門 和合의 계기 마련

TV광고기획자인 코래드에 따르면 TV 광고는 15초짜리 3편을 제작, 방송사마다 각각 한편씩 거는 로터리식으로 만들 계획인데 각자의 주인공을 놓고 출연동문들 사이에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것은 출연동문들 모두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최고의 연예인들이기 때문인데, 아마도 선배동문들의 양보가 확실한 가장 새까만 후배동문들중 주연급의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된 TV광고중 멜린트나 가수들이 대거 한꺼번에 등장한 예가 더러 있지

과의 전통이며 이번 동문들이 기증하는 수익금은 연영과의 실습교재에 보태는 등 유용하게 쓰겠다며 반기워 했다.

연예인들이라면 각자 자신의 바쁜 생활때문에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 사실상 동문회라는 차원의 모임이 활발

하지 못한데, 이번 모교 연영과 CF동문회는 연예계 동문모임 활성화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수익금의 일부분은 科에 기증함으로써 후배들의 학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는 사실 뿐입니다.

### 不遠千里 성금납부

○…白像발당의 입주를 앞두고 본주 하던 4월, 本동동 동子앞으로 한통의 편지와 함께 \$300이 송금되었다고.

LA의 오렌지카운터 동문회장인 김영주(40학번)동문이 백상밸딩 매입에 써달라며 不遠千里 면길에 성금을 보내온 것.

그렇지 않아도 LA에선 기금마련을 위한 글프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아무튼 그 爱校心에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면집이 끝나갈쯤 本동동子 깜짝 놀라며 한마디『그동안 백상밸딩모금, 이전 협찬, 광고협찬에 도움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東同動  
東同大同聯會活動委員會

### “소중한 10萬 동국인의 사랑방”

#### 5월2일은 역사의 날

○…지난 5월2일은 우리同窓會로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기념기적인 날로 기억되어야 할 듯.

모교와 필동, 다시 판문동으로 이어지는 긴 샛길살이(?)길에 드디어 어첫한 우리의 보금자리, 10만동국인의 사랑방을 가져 그 감격 이루 말할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좁으나 소중한 우리동창회의 이 성취가 길게 길게 이어져 1백주년이 그 날엔 넓고 풍물한 同窓會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동치는 東國人, 그 愛校心

○…흔히들 개성이 강하면 뭉칠수 없다고 빙정대지만 적어도 우리 東國人들은 확실한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선 죄근의 일 하나 소개.

#### 내용。

연예계하면 그 프로의식으로 유명하지만 적어도 우리동국인은 애교심에서 최고의 아미추어리즘을 지향한다.

### “태평양을 넘어온 성금에 경의를”

#### 母校愛 발휘는

#### 1萬원의 年會費 납부에서

同窓會부이 내주시는 낙화비 1萬원이 奨學과 本會事業의 밀거름이 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 一회 비 내 역-

- 일반회비… 1만원
- 감 사… 20만원
- 지도위원… 20만원
- 부 회 장… 50만원
- 회 장… 100만원

보내실 곳 : 각은행 지로번호 7500891

우편대체 012328-31-0525667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 신경림 민요이야기 출간

△申庚林(59여문·시인·민족문화작가회의회장)동문은 83년부터 85년에 걸친 전국 민요취재기행을 나서 성리해 「신경림 민요이야기-민요기행」(신학기)을 펴냈다.

한길사에서 펴낸 「민요기행」은 어린이의 수준에 맞춰 개작한 이 책에는 모두 15편의 민요기행을 담았는 데 신

동문은 이 책에 대해 「어린이들이 우리문화, 우리나라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개작했다고」고 밝히고 있다.

‘어느 철학자의 편지’

▲黃弼吳(前도교교수)동문은 계간 「어느 철학자의 편지」 제4호를 최근 발간했다.

내용은 「삶이 무엇이라고 물는다면」「정치철학코너」「석가와 예수는 마닐 수 있는가」「철학적 여성학 코너」등으로 꽤 있다.

생일이면 떠오르는……

##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 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 (70경영)

■西独 보수 純正品  
연료 절약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작동 자량

현대·대우·기아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파트서비스 244-0997

#### 東國人을 위한

그랜저 3.0 2.4 2.0

NEW소나타 2.0 1.8

엘란트라 1.6 1.5

신차 및 중고차 매매, 이전전담 ! /

TEL: (주) 274-3103~8

(야) 268-4603 FAX: 268-4603

**HD 現代自動車**

퇴계로영업소

영업차장

柳在善(70농경·ROTC8기)

## “고수의 금융상품 안내”

□시중 실제금리의 증개여음 !

□자유 CP !

□시중 실제금리 반영 CD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수의 CMA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본점 : 경기도가평군 대내면 771-9000, 차관점 : 777-1461

\*강남점 : 경기도가평군 대내면 777-1461

안정과 행복의 동반자 태평양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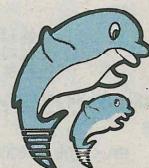
한분한분의 고객 가까이에서—  
**깊은 정성으로 모시는  
태평양생명**

**태평양생명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정성이 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태평양생명—  
 수준 높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철저한 고객관리,  
 그리고 계약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로  
 한분 한분의 고객을 정성껏 모십니다.  
 전국 곳곳으로 뻗어있는 광범위한 서비스망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푹넓은 서비스를  
 펼치는 태평양생명—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내일의  
 동반자입니다.

안정과 행복의 동반자  
**태평양생명**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대표전화 : (02) 561-0303



언제나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두마리의  
 돌고래를 통해 그렸습니다.  
 두마리의 돌고래는 고객과  
 태평양생명을 나타낸 것으로  
 행복과 안정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 **태평양그룹** : 태평양화학 • 태평양종합산업 • 태평양파선 • 태평양제약 • 태평양금속 • 동방기획 • 태평양개발 • 태평양돌핀스 • 태평양학원